

한파 · 대설특보에 농산물 수급 관리 비상

9일까지 사흘간 한파 · 폭설 예보... 전북 40cm 이상 수확 앞두고 난방 가동에 유가 상승세는 상방 압력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4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작물 피해 여부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노지채소류의 경우, 한파와 대설 피해까지 입게 되면 수급 불안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는 피해 예방과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전국에 한파가 예고됐다. 충청 · 전라권에는 한파와 더불어 폭설까지 덮칠 예정이다. 특히 전북남부 내륙은 많으면 40cm 이상, 충남과 전남은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쌓일 전

망이다. 전라권과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이번 겨울 들어 '최강 한파'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떨어졌고,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대설 · 한파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도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근래 배추 · 무 등 농산물의 가격이 전년, 평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인 29일까지 최대 40% 할인

하고, 가용물량 총 1만5500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상(上)품 한 포기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5211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4.8%, 38.8% 상승했다. 전월보다도 37.3% 올랐다.

무 소매가격도 개당 3330원으로 전년보다 84.3%, 평년보다 58.7% 상승했다. 전월보다도 1.0% 소폭 올랐다.

전날까지 5000원대였던 양배추는 하루 만에 6000원을 넘어섰다. 전날 기준 한 포기 6424원, 전월 4722원에서 36.0%나 올랐다. 전년보다는 58.5%, 평년보다 58.8% 상승한 수준이다.

이런 노지채소는 대설과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 추위로 인한 동해(凍害)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추 · 무 등 채소류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 · 진도는 지난해 2년 연속 폭설 ·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한파에 따른 난방비도 문제다.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올라 향후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겨울철에는 수확을 앞두고 시설 농가마다 난방시설을 집중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시설농가 면적의 대부분인 80%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난방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가중돼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11월에도 폭설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월의 폭설은 117년 만에 이례적이었고, 경기도와 충북, 충남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이다. 특히 3일간 눈이 연속해 내리면 누적된 적설량으로 인한 파해가 커질 수 있다.

/뉴시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회 원로와 제임원 등을 초청해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25년 을사년 신년인사회 개최

전건협 전북, 라한호텔서 도회 원로 · 제임원 등 초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회 원로와 제임원 등을 초청해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의 인사와 복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 원로임원, 도회 운영위원, 지역별 · 업종별 협의회 임원과 중앙회 대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자리에 모인 전문건설인들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임근홍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혼란한 국내상황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

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초래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빠르게 적응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보다 희망적인 2025년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

또한 "협회는 2025년 새해에도 전문건설업의 업역확대 및 보호 ·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언제나 회원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김옥기기자

전북중기청, 올해 공공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북지역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13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각 소관부서에서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지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평소 담당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시간도 가지고, 구매담당자를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등의 입력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4조 3,910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7.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 대설 · 한파 대비 현장점검 실시

전북지역 10일 오전까지 도내 전역 10~20cm 눈 내릴 것으로 예상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7일 김제시 광화면 감자 생산농가를 찾아 대설 및 한파 대비하여 시설물 및 작물 생육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북지역은 10일 오전까지 도내 전역에 10~20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해안 및 남부내륙지역에는 3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어 눈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9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이 -12 ~ -7℃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농협은 특보 해제 시까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계통사무소 대상 대설 · 한파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조합원에게 전파하였다.

특히 관내 노후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협관내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전북농협도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 및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진원, 전북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창업자 성공 위한 사무공간 · 프로그램 지원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의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 · 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공간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번 모집 규모는 총 5실(14㎡ 3실, 21㎡ 1실, 30㎡ 1실)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업무공간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

건협 전북,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초청 강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 · 도시연구실장을 초빙해 지난 6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의 주요 중심축인 건설투자 감소 및 건설 고용침체 속 건설시장의 위기가 계속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실장을 초빙하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내수 경기와 건설투자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소재철 회장은 "혼란한 정국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의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의뢰하였고, 앞으로도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